

EVIDENCE — 리서치 ①・②

발칸 프로젝트 근거자료집

능동형 공급 인벤토리 · 시장성 · ATDI

READ·BUILD · KIM HYUNGJUN · 포트폴리오 심화자료 · 인과는 주장하지 않음

이 문서의 정체: 상품 기획안(발칸_상품기획안_A레이어.md)의 모든 사실 주장을 받치는 1차 근거를 모은 자료집. 본문은 논증·제안에 집중하고, 무거운 데이터(인벤토리·지수·궤적·통계)는 여기에 둔다. 기획안 본문의 [근거: §X] 표시는 이 문서의 절을 가리킨다.

출처 두 갈래: 리서치 ①(발칸 능동형 체험 공급·유럽 내 희소성) / 리서치 ②(한국 아웃바운드 발칸 시장성). 두 리서치 모두 균형 평가(맞는 부분 / 과장된 부분 / 반론)를 포함한다.

⚠ 데이터 신뢰도 주의: 일부 수치는 오퍼레이터·여행미디어 자체 페이지(마케팅 언어 혼재)에서 왔고, 일부는 출처 간 편차가 있다. 각 절의 주의 항목에 명시했다. 최상급 표현("유럽 최장" 등)은 신중히 다룰 것.

A. 리서치 ① — 발칸 능동형 체험 공급과 유럽 내 희소성

A-1. 핵심 결론 (균형 평가)

가설 표현	평가	근거
발칸에 능동형 체험이 풍부하고 상업적으로 성숙	사실 (강하게 뒷받침)	A-2 인벤토리 (9개국 전부)
능동형 체험이 "유럽 내에서 드물다 (희소)"	과장 — 절대 밀도는 알프스권이 우위	A-3 ATDI
발칸의 진짜 차별점	"능동형이 풍부하면서도 비혼잡·저렴·미개발인 조합"이 드문 것	A-3
45인승 대형버스 일주가 능동형을 구조적으로 못 담음	사실 (업계 논리·물류·안전·비용)	A-4
'도시 중심 중부유럽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대비	부분 타당 — 오스트리아는 알프스권 능동형 강국이라 제외해야	A-3

사용자 맥락 보정(대화에서 확정): 사용자가 말한 "유럽 내 희소"는 유럽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도는 권역 (베네룩스+영국+독일) 안에서 희소**를 뜻했다. 이 스코프에서는 사실이다(B-5의 '두 종류의 희소' 참조).

A-2. 능동형 체험 공급 인벤토리 (9개국)

모두 실제 상업 운영 중이며, '잠재력'이 아니라 '성숙한 인벤토리'다. 서발칸(디나릭 권역)에 가장 밀집.

국가	대표 능동형 체험	거점	도시·문화 연계
몬테네그로	타라강 래프팅(유럽 최심 협곡 1,333m , 두르미토르 NP·유네스코), 네비디오 협곡 캐니언, 피바 호수 카약, 타라 협곡 집라인, 코토르만 카약·스피드보트·세일링	두르미토르 /자블랴크, 코토르	코토르 구시가 (유네스코)
알바니아	오수미 협곡 래프팅("알바니아의 그랜드캐니언", 13~26km), 비요사강(유럽 마지막 야생 강 중 하나) 카약, 테스·발보나 트레킹 (알바니아 알프스)	스크라파르 /베라트, 테스/발보나	베라트, 티라나
북마케도니아	마트카 협곡 보트(브렐로 동굴, 약 200~500 MKD)·카약 대여(약 300 MKD/시간)·록클라이밍, 마브로보 NP 하이킹	마트카 (스코페 15km)	오호리드 호수 (유네스코), 스코페
보스니아	네레트바강 래프팅(Konjic, 사라예보·모스타르 1시간), 우나강 래프팅(Štrbački Buk, 클래스 IV~V), 브르바스강(바냐루카, 세계챔피언십 개최), 모스타르 스타리모스트 다이빙(Red Bull Cliff Diving 개최지)	코니츠, 비하치, 모스타르	스타리모스트, 사라예보
슬로베니아	소차강 래프팅·카약·캐니언(Bovec, 올리안 알프스), Sušec·Fratarica 협곡	보베츠/소차밸리	블레드 호수, 류블랴나
크로아티아	체티나강 캐니언·래프팅(Omiš), 즈르만야·프레주니차강 카약, 파클레니차 NP 록클라이밍·비아페라타, 코르나티·엘라피티 군도 해상 카약	오미시, 파클레니차	(기존 패키지 핵심)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다뉴브강 리버크루즈(90분, 약 20유로) , 섀넛 카약, 다뉴브 협곡(Iron Gates)·드리나강 크루즈, 타라 NP 당일 투어	베오그라드	(※경관 중심, 능동형 강도는 낮음)
불가리아	발칸산맥·로도피·릴라·피린 하이킹, 반스코·보로베츠 산악 리조트 멀티시즌 하이킹·MTB	반스코, 릴라	소피아
루마니아	카르파티아(파가라쉬·레테자트·부체기) 트레킹, 비아 트란실바니카(888마일 트레일), 아리에슈·부저우강 래프팅, 아푸세니 동굴, 곰 관찰	카르파티아	브라쇼브, 시비우

초국경 트레일: Via Dinarica(슬로베니아~알바니아 디나릭 종주, BiH 본거지·Green Visions 개척), Peaks of the Balkans(몬테네그로·알바니아·코소보), 비아 트란실바니카(루마니아).

※ **세르비아 리버크루즈 주목:** 사용자의 2026.1 원래 제안 must-do 3종(코토르 스피드보트·브렐로 동굴·**베오그라드 리버크루즈**) 중 리버크루즈가 여기 실재한다. 단 두 하나투어 상품 모두 미포함(5개국은 세르비아 자체 스킵).

A-3. '유럽 내 희소성' 검증 — ATDI 2024

자연 자산의 우월성은 사실. 디나릭 알프스 = 슬로베니아 소차강~알바니아 드린강 약 645km, 유럽 최대 연속 카르스트(약 6만 km²). 유럽 최장 지하 하천망, 깊은 협곡(타라 1,333m), 원시림(Perućica), 대형 포유류(곰·늑대·스라소니) 핵심

피난처. 'karst'라는 단어 자체가 슬로베니아 크라스(Kras) 고원 유래. → 래프팅·캐니어링·하이킹·동굴탐험에 유리한 지형(지질학적으로 명백).

그러나 '능동형 밀집도 유럽 내 회소'는 데이터로 반박됨. ATDI(Adventure Tourism Development Index, ATTA·조지워싱턴대 IITS, 186개국. 0~10 척도, 글로벌 평균 3.9. 가중치 Enabling Environment 30%·Resources 40%·Readiness 30%):

구분	순위·점수
선진경제 부문 상위	독일 1위(8.00), 프랑스 2위(7.14), 스위스 3위(6.93), 노르웨이 4위(6.87), 오스트리아 5위(6.81) – 알프스/노르딕 코어가 지배
발칸 (선진경제군)	크로아티아 19위, 슬로베니아 23위(천연자원 5위·6.84), 불가리아 32위
발칸 (신흥·개도경제군, 147개국)	몬테네그로 8위(5.18), 루마니아 10위(5.14), 알바니아 19위, 보스니아 33위, 세르비아 34위, 북마케도니아 60위
참고	미국 전체 24위(서유럽·북미 내 19위) – 지수가 인지도 아닌 경쟁력 측정임을 시사

→ 발칸은 '상위권'이나 알프스권을 능가하지 않는다. 발칸은 천연자원은 강하나 준비도·인프라가 순위를 끌어내린다.

바론(균형): 알프스권·노르딕은 능동형이 매우 강하다. 스위스 국토 약 65%가 알프스, 6.5만 km+ 하이킹 트레일, 인터라켄·그린델발트의 패러글라이딩·캐니어링 밀도가 세계적. 인터라켄은 "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아웃도어 밀도가 없다"고 마케팅.

'자연 밀착형 서발칸 vs 도시 중심형' 구분: 슬로베니아·몬테네그로·보스니아·알바니아·크로아티아(디나릭)는 자연 밀착형. 세르비아(베오그라드)·불가리아(소피아)·루마니아(부쿠레슈티)는 수도가 평지·도시 중심. 단 후자도 카르파티아·발칸산맥·드리나강을 끼고 있어 절대적 구분은 아님.

'중부유럽 대비'의 정밀화: 체코(프라하)·헝가리(부다페스트)는 도시·문화·온천 중심으로 대비 타당.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알프스권 능동형 강국(ATDI 5위)**이라 "도시 중심 동유럽"으로 묶으면 부정확 → 대비에서 제외할 것.

A-4. 45인승 단체 일주 모델의 구조적 한계

하나투어 발칸 상품 자체가 대형버스 기반. 발칸 2국(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9일 상품은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탑승으로 편안한 여행"을 셀링포인트로 명시, "NO 쇼핑·NO 선택관광" 구성에 능동형 체험 미포함.

총돌 요인	내용
인원 규모	래프팅 보트 6~8인, 캐니어링 가이드당 7~8인, 해상 카약 등 본질적 소규모 단위. 45인 동시 투입 시 다수 가이드·세션 분할로 일정 붕괴
고정 일정·동선	일주는 매일 도시 이동·백트래킹 회피. 능동형은 특정 강·협곡(타라·소차·네레트바)에 고정돼 도시 동선에서 이탈
안전·보험·체력 편차	단체 고객층(연령·체력 광범위)은 클래스 III~V 래프팅·캐니어링에 부적합 경우 많고, 인솔자 1인 관리 범위 초과
비용 구조	능동형은 1인 추가비용 50~150유로로 노옵션·가성비 단체 상품과 충돌

능동형의 실제 소비 형태 = 소규모. Intrepid Travel 공식 FAQ: 대부분 여행이 12~16명(평균 약 10명), 오버랜드 투어도 전용 차량 최대 24명. 어드벤처 전문 오퍼레이터 통상 8~16인. 업계 분석: "성장 중인 그룹 여행은 공유 일정이 아니라 공유 활동(사이클·요리·도보) 중심 8~12인." → 발칸 능동형은 소규모 그룹·FIT·전문 오퍼레이터(MT Sobek, Much Better Adventures, 57hours, Raftrek, Green Visions 등)로 소비.

공급 성숙도 근거: 다수 오퍼레이터가 15~20년+ 운영(Socx Rafting 1989년 설립, Outdoor Albania, Green Visions, Raftrek 등). IRF(국제래프팅연맹) 인증 가이드, 보험 포함 패키지, 코토르는 항만청·해안경비대 연례 안전 인증. Albania Rafting Group은 약 20년 전 알바니아에 래프팅 도입(USAID 지원 자격·인증 체계).

A-5. 리서치 ① 주의사항

- ATDI 2024는 '인기·방문객 수'가 아니라 '경쟁력·잠재력' 측정. 2024년판은 방법론 리셋(핵심 10→9개, 지표 19→23개·17개 신규)으로 과거판과 직접 비교 불가. 개별국 0~10 점수는 경제군 톱10만 공개(알바니아·보스니아·세르비아·북마케도니아는 순위만).
- 인벤토리 다수가 오퍼레이터·여행미디어 자체 페이지(마케팅 언어 혼재). 최상급 표현 신중히.
- 발칸 관광 급성장 중(서발칸 2023 도착 +23%) → 인프라·혼잡도가 수년 내 변동 가능.

B. 리서치 ② — 한국 아웃바운드 발칸 시장성

B-1. 핵심 결론 (균형 평가)

질문	평가
발칸이 크로아티아 성장 궤적을 따라갈 수 있나	잠재력 크나, '꽃보다 누나'급 미디어 촉매 + 직항이라는 두 변수가 부재
발칸의 현 위치	크로아티아 1.5단계 (인지도 형성+연계 방문, 단독 수요 미형성)
데이터 상태	매우 빈약 — 한국은 2006년 출국신고 간소화로 목적지별 통계 미생산

B-2. 크로아티아 5단계 성장 궤적 (아날로그)

단계	시기	내용
1 무명기	~2013	직항 없음·터키 경유. 한국인 약 7.5만 명 . '유럽 변방'
2 촉매기	2013~14	'꽃보다 누나' (2013.11.29~2014.1.17). 첫회 시청률 10.5%(케이블 최초 첫회 10% 돌파). 1년 만에 약 24만 명 (인터파크투어 기준 두브로브니크 +308% 1위)
3 확산기	2014~17	패키지 폭증·신혼여행지 부상. 2017년 정점 약 44.8만 명 (숙박 53.3만 박, 비유럽 중 미국·호주 다음 3위)
4 직항·성숙기	2018~19	대한항공 인천-자그레브 직항(2018, 아시아 최초, 주3회) → 1년 만 철수(2019) . 2019년 도착 40만+·숙박 51.1만 박+
5 회복·재포지셔닝기	2024~	티웨이 인천-자그레브 직항 재개(2024.5, 주3회 A330, 7~10월). 2024 1~10월 도착 16만(+37%)·숙박 21만 박(+34%). 한국인 1일 평균 소비 155유로(미국과 최상위)

핵심 경고(직항 경제성): 대한항공 직항이 1년 만에 철수했고 티웨이도 계절적·간헐적이다. 발칸 단독 직항의 경제성은 매우 불확실 → 기획안의 핵심 리스크.

B-3. 발칸의 현재 위치 (한국 시장)

- **여행사 상품은 이미 적극 편성:** 하나투어 '발칸' 전용 카테고리 — 발칸 2,3국 9일(239만~), 동유럽 발칸 6국 9일(269만~), 동유럽 발칸 완전일주 12일(409만~). 모두투어·롯데관광·삼호투어 등도 다수 보유.
- **그러나 실질 주력은 크로아티아:** 대부분 상품이 크로아티아(자그레브·플리트비체·스플리트·두브로브니크)를 핵심으로 슬로베니아(블레드)·보스니아(모스타르)·몬테네그로(코토르)를 연계.
- **직접 데이터:** 몬테네그로 2024년 한국인 입국 **3,889명**, 숙박 5,952박(전체 외국인의 0.2%). 알바니아·세르비아·보스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는 한국인 별도 집계 미공개.
- **평가:** 발칸(크로아티아 제외)은 '인지도 형성 + 연계 방문' 단계 = 크로아티아 2013년 방영 직전과 유사, 단독 수요 미형성.

B-4. 한국 아웃바운드 구조 변화

- 2024년 내국인 출국 **2,872만 명**(2019년의 99.4% 회복). 일본·베트남·중국이 절반 이상.
- **패키지 역성장 vs FIT 급성장:** 하나투어·모두투어 2025 패키지 송출 각 **-5%·-17.1%**. 하나투어 FIT 이용객 2026 1분기 **148만 명(사상 최대, +29%)**.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많은 분들이 하나투어를 패키지 회사로 알지만, 2019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고객의 **3분의 2는 자유여행객**".
- **2030 전환:** 2030 전용 '밍글링 투어' 2025년 1~9월 여행객 전년比 **약 +560%**(파이낸셜뉴스 / 비즈트리뷴은 10월 누적 +557%로 보도 — 매체 간 미세 차이). 동유럽 '세미패키지'(핵심 이동·숙박만 지원) 부상.
- '남들 안 가는 곳' 차별화 수요가 발칸에 우호적 거시 환경.

B-5. 거시 순풍 + '두 종류의 희소' 정식화

글로벌 발칸 인바운드 급성장(한국 선행지표):

- 서발칸 2023년 도착 **+23%**, 숙박 +27.5%(RCC).
- 알바니아 UNWTO 바로미터(2024 3분기): 2019년 대비 국제도착 **+61%**(카타르·사우디와 함께 세계 최상위). 세르비아 관광수입 2019년 대비 **+99%**(거의 2배).
- 불가리아 2024년 국제 방문객 1,330만 명(기록적), **2025 생겐 가입·2026 유로 도입**.
- EU 가입 추진: **알바니아·몬테네그로 2030년 가입 목표**. 인프라·항공 확대 진행. →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신호.

'두 종류의 희소' (대화에서 확정한 핵심 구분):

종류	스코프	평가
권역 내 희소	사용자 FIT 동선(베네룩스+영국+독일)	사실 — 평지·도시권이라 능동형이 지리적으로 부재. 종탑·보트·운하 크루즈 외 능동형 없음
조합의 희소	발칸(디나릭)	사실 — 절대 밀도는 알프스권 우위지만, '능동형+비혼잡+저렴+미개발' 조합은 드물

공집합 프레이밍: 서유럽에 능동형이 *완전히* 0은 아니다(아르덴 카약·하이킹, 영국 호수지구·스노도니아, 독일 흑림). 그러나 사용자의 실제 도시 동선(브뤼헤·헨트·안트베르펜·브뤼셀·로테르담·암스테르담·런던·프랑크푸르트·하이델베르크)은 전부 도시 코어라 그 능동형 권역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 "**내 동선 ∩ 능동형 권역 = 거의 공집합**"으로 표현하면 "서유럽에 능동형이 없다"는 과한 주장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논점이 정확해진다. (발칸 해체 때 하나투어 2개로 쪼갠 것과 같은 '스코프 정확히 긋기' 규율)

B-6. 미디어·콘텐츠의 목적지 부상 효과 (반복 패턴)

콘텐츠	목적지	효과
꽃보다 누나(2013~14)	크로아티아	방문객 3배, 두브로브니크 +308%
꽃보다 할배	스페인	인터파크투어 방영 전 1~2월 예약 +170%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내일투어 문의 전년비 10배
윤식당2	스페인(테네리페 가라치코)	한국인 방문 증가

→ 패턴은 명확하나 인과의 정확한 규모·지속성은 출처마다 편차 → '강한 정황 증거'로 다룸.

B-7. "발칸이 크로아티아를 따라갈 수 있나" — 균형 평가

긍정 근거: 글로벌 인바운드 이미 폭발(알바니아 +61%),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 1~3년 시차 추종 / 여행사 상품 선제 편성(공급 준비됨) / 2030 FIT·차별화 수요 우호 / 크로아티아가 '관문' 역할로 발칸 연계 동선 형성 / EU·인프라·항공 순풍.

크로아티아와 다른 점·한계: 단일 미디어 트리거 부재(꽃누나급 콘텐츠 없음) / 직항 부재(몬테네그로·알바니아 직항 전무, 경우 2~3회) / 화폐 분절(디나르·마르크·데나르) / 단일 아이콘 부재(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같은 각인된 랜드마크 약함).

반론(과열 경계): 크로아티아 자체도 유로·고물가로 장거리 수요 정체 → 발칸이 크로아티아 '전성기 규모' 재현 보장 없음 / 패키지 시장 역성장이 단체 패키지에 역풍 / 발칸 단독 직항 경제성 불확실(대한항공 철수 선례).

B-8. 데이터 투명성 고지 (정직성 = 강점)

- **한국 측 목적지별 아웃바운드 통계 부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2006년 출국신고 간소화로 행선지별 집계 중단. "한국인 발칸 방문객 수"의 한국 측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 **발칸 측 한국인 집계 빈약:** 몬테네그로(3,889명, 2024)만 확인. 크로아티아도 2013·2017·2019·2024 등 일부 연도만 공개(2014~16·2018 한국인 연도별 수치 직접 출처 미확보).
- **보강 방법:** 크로아티아 선례(KOTRA·관광청·여행업계) + 글로벌 발칸 인바운드(UNWTO·RCC) + 한국 여행업계 상품·실적 동향으로 삼각 검증.
- 알바니아 성장률은 홍보자료(+80%)와 UNWTO(+61%) 불일치 → 권위 출처(UNWTO) 채택. 밉글링 +560%도 매체 간 미세 차이.

C. 리서치 간 교차 정합성

- 리서치 ②가 "발칸 상품 실질 주력 = 크로아티아, 나머지는 연계 걸가지"라고 확인 → 역설계 분석에서 잡은 "5개국은 크로아티아 제외(히든짐), 6개국은 크로아티아 포함(완전정복)"과 일치. **업계가 '크로아티아=검증된 앵커 + 발칸=차별화 걸가지' 구조로 이미 베팅 중**이라는 교차 증거.
- 리서치 ①(공급)과 ②(수요)의 결합: 발칸은 **지형이 능동형을 강제**하지만(①), **시장은 미성숙**(②) → 기획안의 "지형이 무엇을, 시장 단계가 어떻게를 결정"이라는 두 결정 변수의 근거.

부록. 출처 메모

- 리서치 ① 주요 출처: 각국 관광청, 어드벤처 오퍼레이터(Durmitor Adventure, Socǎ Rafting, Outdoor Albania 등), ATTA·조지워싱턴대 ATDI 2024, UNWTO, 여행미디어(Much Better Adventures 등).
- 리서치 ② 주요 출처: 크로아티아 관광청(HTZ)·KOTRA 자그레브, 한국 법무부 출입국 통계, 여행신문·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 등 업계 보도, 하나투어 IR·상품 페이지, MONSTAT, UNWTO 바로미터, RCC.
- 전수 검증 범위: 본 자료집은 대화 전체 + 리서치 ①② 아티팩트 전문 대조로 작성. 한국 측 직접 데이터 부재는 B-8에 명시.